

Discover

Inspiring

Artistry

Suh Heesu

DIA

서희수 개인전 <내가 경험한 짙은초록>

2024. 7. 26 – 8. 24

내가 경험한 짙은초록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난 서희수는 홍익대학교와 뉴욕주립대에서 도예와 설치미술을 전공하였다. 그동안 작가는 도예에서 가장 중요한 흙이 가진 물성을 연구하고, 다채로운 매체와 혼합하여 자신만의 독보적인 작품세계를 형성해 왔다. 그의 작업은 재료를 관찰하고 몰입하는 과정을 통해 매체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관념을 버리고, 은유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개념을 작품에 투영시킨다. 그리고 보는 이로 하여금 함께 경험하고 사유하도록 한다. 이러한 그의 작품은 도예로 떠오르는 일반적인 도자기 형태를 벗어나 재료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물성으로 평면, 설치, 조각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로 선보인다.

이번 디아 컨템포러리와의 첫 전시에서는 오랜 기간 작가가 탐구한 '인류의 근원적 상처와 자생적 회복력'에 대한 탐구를 새로운 매체로 시각화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신작<껍질의 시간>은 작가가 그간 다루어 온 붕대가 아닌 전통 한지로의 새로운 매체의 물성을 선보인다. 무의식적으로 받은 인간의 상처를 붕대가 가지는 '결'로 치환하며, 치유의 과정을 조형 작품과 평면 콜라주 작업으로 선보였던 작가는 이번에는 나무껍질의 '결'로 그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자연의 순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변화에 따른 심미적인 관념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의 조형적 예술 언어의 범주를 확장시켜 나간다.





서희수 Suh Heesu

껍질의 시간 Time of tree 2024

한지 Hanji on canvas

145.5x112.1cm



이번 전시에서 소개되는 신작 <껍질의 시간>은 재료탐구의 출발점이 되어진 나무껍질의 탐구하며, 자연의 소멸과 자생적 회복력에서 사유한 작품이다. 작가는 그동안 다루어 온 인류의 근원적 상처와 자생적 회복력에 대한 이면성을 기반으로 탐구한 개념을 나무에서 파생되는 종이의 재료인 전통 한지를 통해 선보인다. 자연에서 소멸되고 회복되어지는 나무껍질의 ‘결’에 집중하고, 상처와 치유, 소멸과 생성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봉대가 남긴 ‘결’의 내포된 의미와의 교차점을 찾고, 개념적 서사구조를 연결해 나간다.

기존 봉대시리즈에서 조심스레 봉대를 감아올리듯, 이번 작품 역시 한 겹, 한 겹 감싸듯 섬세하게 쌓아 올리고, 붙여 나가는 몰입 과정에서 수행의 시간을 가지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되돌아 본다. 작가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 과정 속에서 재료가 가진 물성을 극대화하여 자신의 개념을 구체화 시켜 나가고, 보는이로 하여금 함께 교감하고, 경험하게 한다.



서희수 Suh Heesu

껍질의 시간 Time of tree 2024

한지 Hanji on canvas

145.5x112.1cm



구체적이고 유연한 경험

서희수는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인간에 근원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의 상처와 자연의 회복력에 대해 탐구한다. 특히 작가는 부패되고 소멸되어지는 것의 존재 안에서 괴기하거나 환상적으로 그로테스크한 소멸의 미에 관심을 가지며, 삶과 자연 속에서 소외되고 무관심의 대상이 가진 이야기들을 사려 깊게 관찰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발견한 것들을 표현한다. 그의 작품은 재료의 선택과 작업 과정에 주목하는데, 그간 '붕대'와 '흙'을 주재료로 삼아 인간 본연의 내재된 불안과 상처를 치유하는 매개체로 사용하였다. 특히 붕대의 특성인 '결'을 가진 천 재료와 흙물을 함께 결합하여 감아올림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는데, 1230도의 가마 안에서 소성하는 과정을 통해 붕대의 재료는 가마 불 속에서 사라지고 흙에 붙어있던 붕대의 결만 남아 얹어진 견고하고 단단한 도자질의 결과물을 상처의 결로 표현하며 그 필요성과 의미성에 대해 조형 작업과 평면 콜라주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서희수의 이번 개인전 <내가 경험한 짙은 초록>에서 그동안 작가가 다루어 온 인류의 근원적 상처와 자생적 회복력에 대한 이면성을 기반으로 탐구한 신작 <껍질의 시간>을 선보인다. 작가는 제주의 숲 중 가장 척박하고 벼려진 곳자왈 숲에서 경험한 소멸성과 자생력 그리고 비밀스러운 회복력에 고찰하며, 인류 탄생 이전의 자연이 가지고 있는 순환과 자생적 치유성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견뎌내고 자라난 바위와 같은 나무의 삶과 인간의 삶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그 교차점을 찾는다.

“저는 상처 입고 부패되고, 소멸되어지는 것들의 아름다움에 눈길이 갑니다.” -작가 노트

전시에는 작가가 숲에서 마주한 자연의 경외감과 생태적 순환의 받아들이고, 초연함에서 받은 위로와 인간 본질의 모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담아낸다. 그 과정을 거쳐 마침내 자연과의 연결 안에서 스스로를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애도의 시간을 가진다. 작가는 이러한 일련의 시간을 작품에 기록하였다. 신작 <껍질의 시간>은 이전의 작업에 쓰인 붕대가 남긴 단단한 '결'의 표현에 이어 나무껍질의 '결'에 집중한다. 나무껍질이 가지고 있는 텍스처를 다양한 표면으로 형상화하여, 껍질 안에 나약함과 그 이면에 가지는 시간의 축적 안에 껍질의 단단함, 보호와 순환적 자생력을 나타내고 있다.

재료의 물성에 대한 실험과 탐구로 다양한 작품 선보였던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나무에서 파생된 전통 한지를 새롭게 연구하며 그의 예술적 조형미를 한층 더 확장시킨다. 기존에 반복적으로 감아올리는 작업 형식같이, 이번 작업 역시 한지를 한 겹, 한 겹 감싸듯 쌓아 올리고, 붙여 나가는 몰입 과정에서 수행의 시간을 야기시킨다. 작가는 자신이 다루는 재료가 가지는 고유의 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텍스처의 변형을 가하는 실험으로 매체와 이미지 사이를 고찰하며, 재료가 가진 물성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고정된 재료의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의 대상으로 확장하며, 예술적 표현법을 통해 자신의 개념을 구체화 하였다.

한편, 전시에서는 평면 작품 이외 작가적 시점으로 해석하여 보여주는 설치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평면의 틀에서 벗어나 설치되는 작품은 생명력이 꿈틀대는 경이롭고 신비로운 숲을 경험하고, 어떠한 제약 없이 응시한 관람자의 다양한 시점에서 위치를 이동하게 한다. 그리고 마주하는 순간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예고하며, 무엇인가 기억하고 상상하게 하는 순순한 경험을 행위하도록 한다. 작가는 설치 작품을 통해 작가 스스로가 경험하고 해석한 '짙은 초록'을 마주하며 파생되는 인간의 다층적인 감정을 전달하는데, 이는 색이 가지는 자극이 하나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른 감정도 수반하는 공감각적인 것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인간 본연에 내재한 여러 본성과 무의식적 반응을 끌어내어, 관객들이 시선이 닫는 그곳에서 많은 이들이 감정의 기억을 마주하고 새로운 지각의 확장과 사유의 여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Installation View

DIA



서희수 Suh Heesu

껍질의 시간 Time of tree 2024

한지 Hanji on canvas

가변설치





서희수 Suh Heesu
껍질의 시간 Time of tree 2024
한지 Hanji on canvas
162x130cm



“나는 상처 입고 부패되고, 소멸되어지는 것들의 아름다움에 눈길이 간다. 자연에서 이러한 현상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하나의 순환으로 여기며, 이 불가항력적으로 필요한 소멸의 시간을 거쳐 다시금 생명력을 찾아가고 있다.”

서희수



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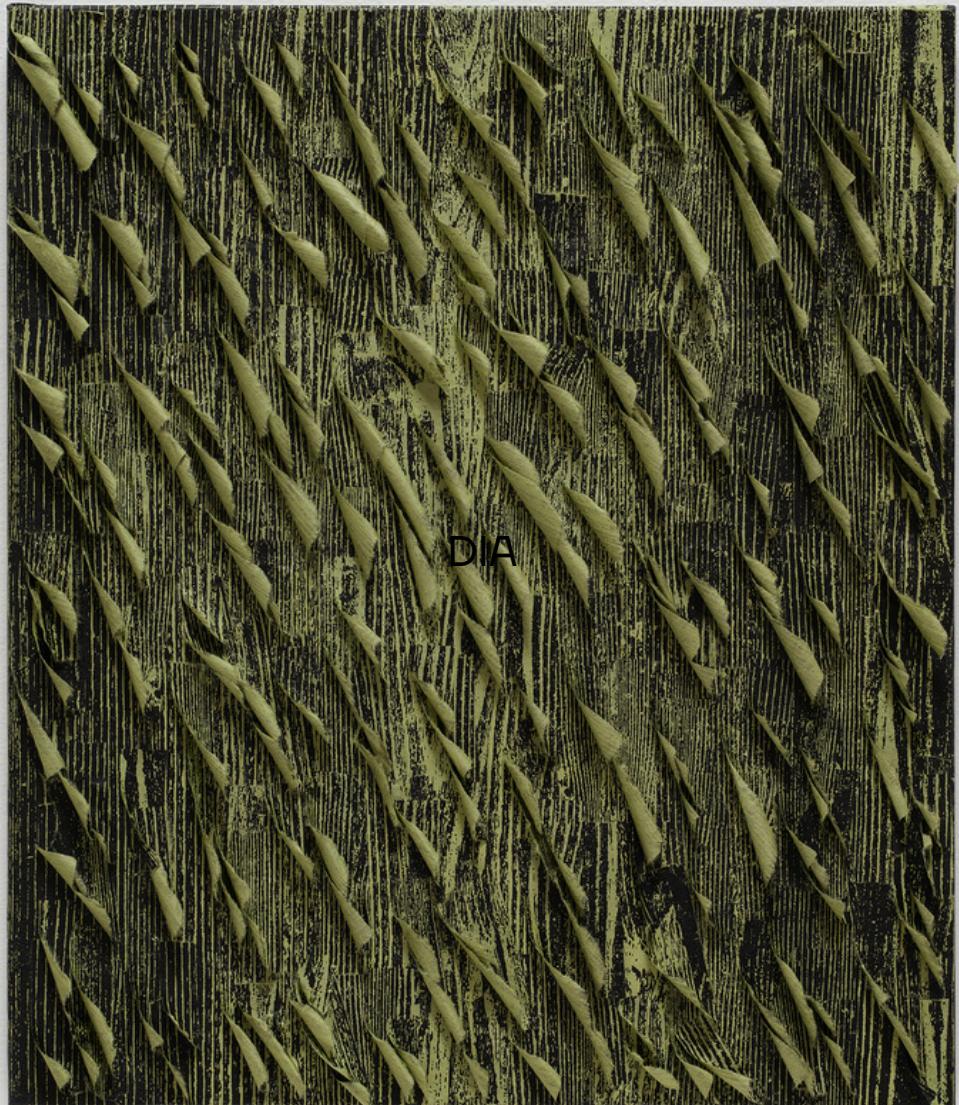


서희수 Suh Heesu
껍질의 시간 Time of tree 2024
한지 Hanji on canvas
53x45.5cm



서희수 Suh Heesu
껍질의 시간 Time of tree 2024
한지 Hanji on canvas
53x45.5cm

DIA



서희수 Suh Heesu
껍질의 시간 Time of tree 2024
한지 Hanji on canvas
53x45.5cm

DIA



서희수 Suh Heesu
껍질의 시간 Time of tree 2024
한지 Hanji on canvas
53x45.5cm



서희수 Suh Heesu
껍질의 시간 Time of tree 2024
한지 Hanji on canvas
53x45.5cm



서희수
(b.1973)

서희수는 개인적 경험에서 시작한 서사적 요소들을 사회적인 서사와 관념으로 확장시켜나가며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서사를 작품 속에 담아내고 있다. 그의 대표작 <붕대 시리즈>에서는 무의식에서도 생채기 난 인간의 상처와 치유하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으며, 새롭게 선보이는 신작 <껍질의 시간>에서는 자연으로 시선을 확장하며, 자연에서 소멸과 생성이 가지는 삶의 순환과 인간의 삶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그 교차점을 찾는 작품을 선보인다.

서희수는 홍익대학교 도예유리과와 동대학원 공예디자인과를 졸업하였으며,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미술치료학과 박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다함갤러리(2020), 통인갤러리(2017, 2011), 웅갤러리(2014), 관훈갤러리(2003), 뉴욕 Samuel Dorsky Museum at SUNY New Paltz(2000)에서 주요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서촌공예언덕(홍건익가옥, 서울, 2024), 화이트 앤솔러지(청주시한국공예관x서울공예박물관, 2023), 백자전(서울공예박물관, 서울, 2022), 테제(분더샵, 2021), 좌회전 우회전(영은미술관, 경기도, 2002) 등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하였으며, 그외 현대자동차 Hpix, 윤현상재, 아트앤퐋션 등과의 다양한 프로젝트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현대 자동차, 코리아나박물관, 힐튼 호텔 등에 소장되어 있다.

Discover Inspiring Artistry

3F 23, Yeonhui-ro 11ga-gil,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03707

www.diacontemporary.com

info@diacontemporary.com

[@dia.contemporary](https://www.instagram.com/dia.contemporary)

DIA